“서래원서 봉은사 역사 담긴 두부 드세요”

서울 봉은사, 서래원에서 봉은 두부 · 빵 · 꽃 판매

코로나 한파, 사업으로 돌파
사찰 최초로 정식 사업 등록
2월엔 분식점도 개원할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래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서래원 내 ‘여여’에서 상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여여’ ‘로터스플라워’ ‘봉은두부’ 등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린 서래원 전경.

지난해 사찰 입구에 신도문화공간이자 전통문화체험공간 ‘서래원’을 개원한 봉은사가 서래원 내 두부, 빵, 꽃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본격 영업에 나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월 7일 서래원 앞에서 신도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마련을 축하하는 개점식을 열었다. 그동안 서래원 내에는 불교전통용품을 판매하는 곳만 있었다.

개원식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에는 신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찾는 만큼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우리 문화를 알릴 곳이 필요했다.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래원 내에는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인 카페 ‘여여’와 봉은사의 조포사(제사에 올릴 두부를 만들던 사찰) 전통을 이어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는 ‘봉은두부’, 사찰을 장엄하는 꽃을 활용한 ‘로터스 플라워’ 등이 들어섰다.

서래원은 봉은역사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불교용품점 등이 위치했다. 불사과정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지하에는 음식점 등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설비 등이 배치됐다.

이미 봉은사에는 여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늘고 있다. 개점한지 2주만에 찾는 이들이 일평균 3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법회 등이 축소된 상황에서 코로나 회복과 동시에 신도들의 유입이 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은사의 이같은 사업 진행은 코로나 기간 기도 보시금의 축소로 인한 재정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는 2월 중 서래원 지하공간에 분식과 사찰음식, 국수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도 개점할 예정이다.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활용하여 인근 회사원들의 방문 등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4월 서래원 개원 이후에도 서래원은 정식 사업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동안 사찰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사찰이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 자격이 박탈되기에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야 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 규정이 없었다.

현재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찰의 경우도 별도 법인을 내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으며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해왔다. 별도 법인시 회계상 다른 사업체이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사찰 재정 투명화 등이 이미 진행된 봉은사의 경우 사업등록 문제가 개점을 가로막았다. 봉은사 측의 요청과 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국세청이 규정을 개선해 비영리법인인 사찰이 본점으로서 사업목적의 지점을 개설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래원에서는 정식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원활하며 봉은사 또한 서래원 수익금을 사찰 목적사업 등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

봉은사 측은 “서래원은 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한편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불교상품들을 선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불교문화 저변확대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마음거울108 ‘통합 앱’ 출시

마음거울108 일러스트 활용한 ‘컬러링 엽서북’도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행문화를 회복하고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용중인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 5종(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을 통합 · 개선하여 출시하고 마음거울 콘텐츠를 활용한 컬러링 엽서북 굿즈를 배포한다.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은 지난 8년간 108배 절수행과 명상을 돕는 수행도우미 앱으로서 불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사용자는 이제 마음거울108 통합 앱을 통해 별도의 추가 다운로드 없이 계층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콘텐츠 5종을 모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 마음거울108 컬러링 엽서북은 어린이 마음거울108 콘텐츠의 일러스트와 발원문구 중 30가지를 선별하여 제작되었다.

어린이 불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만의 색으로 빈 그림을 색칠하면서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완성된 그림은 책에서 손쉽게 떼어낼 수 있으며 뒷장에 메시지를 담아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음거울 시리즈에 이어 통합 앱 개발과 컬러링 엽서북 제작 총괄에는 원일훈 교수(홍익대 애니메이션학부)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포교원은 향후에도 포교원에서 개발한 포교콘텐츠의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필요와 요구에 충족되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음거울108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계층별 마음거울 108 단일 앱 5종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한다.

어린이 마음거울108 컬러링 엽서북은 전법중심도량과 어린이 · 청소년포교단체에 소량 배포할 예정이다. (02)730-6940

노덕현 기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 한 · 영번역

조계종, 15년만에 재발간
원판 모습 반영해 디자인

세계최초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가 현대에 맞게 재탄생했다. 특히 한글과 영문번역서로 동시 발간돼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직지〉 도서의 한글 및 영문번역서를 발간했다. 2005년 종단에서 처음 번역서를 발간한 후 15년만이다. 이번에 제작된 〈직지〉는 기본 번역본에 대한 대대적인 감수와 재편집을 통해 현대적인 언어와 전통을 살린 디자인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끈다.



2027년은 〈직지〉가 인쇄된 지 650주년이 되는 해로, 종단은 한 · 영 번역서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불어 번역서 발간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과 세계최초의 금속인쇄술을 가진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직지〉는 정식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로, 백운 경한(白雲 景閑, 1298~1374) 스님이 엮었으며 백운 스님 입적 후인 1377년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주조됐다. 백운 스님이 스승 석옥선사로부터 전해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략한 내용에, 과거 7불(佛)과 인도 28조사(祖師), 중국 110선사(禪師)들의 방대한 게 · 송 · 찬 · 가 · 명 · 서 · 법어 · 문답 등을 첨부한 결과물로, 부처님과 조사들의 선의 요체에 대한 가르침 중 핵심을 발췌해 수록했다는 점에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지침서로 일컬어진다. 송지희 기자

燈으로 유네스코 등재 기쁨 나눈다

연등회보존위, 2~5월 진행해
‘기원의등’‘희망의등달기’ 추진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쁨을 전국민적으로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연등회보존위원회(이하 연등회)는 올 2월부터 5월 부처님오신날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사찰 ‘기원의 등달기’와 ‘집집마다 희망의 등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사찰에서는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축하등과 코로나19 극복 기원 등’을 법당에 장엄하며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건강과 행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원을 담은 등을 만든다는 방식이다. 전통 팔모등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팔모등 만들기’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또 문양과 등표 시안 등 각종 자료들은 연등회 홈페이지(www.11f.or.kr)에서 다운로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향후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시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불교 · 시민 단체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역량있는 불교 · 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공)는 전국 불교 ·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다.

선정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 이하 규모를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10월까지, 결과보고는 11월 5일까지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정분야에서 사회봉사 네트워크 사업, 기후변화 대책 등 환경분야, 인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이며, 비지정분야는 경제, 생명, 방송, 여성, 남북통일사업 등 지정 분야 외 공익사업이다. 연대분야와 발전분야 지원대상도 모집중이며, 연대분야는 2개 단체 이상이 연대해 진행하는 사업, 발전분야는 최소 3년 이전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자부담 50% 이상이어야 한다.

2월 9일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이어 2월 3~4째주 결과선정 후 개별통지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02)2011-1829 송지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내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1시 ~ 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1시 ~ 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배	각배 과정	목	오후1시 ~ 5시	편입생 약간명	김태호 스님
4학년	영산	영산 과정	금	오후1시 ~ 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 ~ 4시	/	심만춘 스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1년 2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1년 3월 첫째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 특 전 : ①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②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조고담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